

월/요/광/장

강재홍



최근에 우리철도의 해외진출 현장을 살피기 위해 터키와 그리스 출장을 다녀왔다. 이 두 나라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과 해당국의 정부관계자를 면담하고, 이동 중에는 철도를 체험하는 일정이었다. '집 떠나면 고생'이란 말 그대로 제법 힘든 여정이었는데, 여행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고 해결, 즉 식사와 용변 같은 매우 단순한 사안으로 귀결된다는 생각에 혼자 쓴 웃음을 지었다.

도로만 8만km에 이르며, 지선도로까지 포함하면 무려 15만km에 이른다. 이번 여행길에 들러본 그리스 제2의 도시 데살로니카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고도(古都)이다. 오래된 황

사회간접시설과 지역 경쟁력

구도시인 만큼 크고 작은 전쟁의 무대가 되기도 했지만, 표준화된 로마의 도로를 그대로 옮겨온 듯한 '에그나티아 가도(Via Egnatia)'를 보면서 당시 로마인들의 열정적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 아드리아 바다를 건너 이태리 본토에서 배를 타고, 다시 그리스를 가로지르는 이 길은 여제의 적을 포용하는 평화의 정지와 공동 번영의 상징이라 이를지을 수 있다. 광주·전남지역은 현재 의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J프로젝트와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를 계기로 다시 한번 도약을 꿈꾸고 있다. J프로젝트 사업은 최근 외자유치를 둘러싼 논란이 되었던 서남해안

발계획(S프로젝트)의 여과 등으로 한때 난항을 겪기도 했으나, 서남권 발전협의회와 민간인을 중심으로 한 서남해안포럼이 결성되면서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현재 진행중인 J프로젝트의 대강은 해남 간척지 3,200만평 일대에 골프장과 해양리조트 등 복합레저도시를 건설하는 것으로, 국내외 자본 300억 달러가 투자될 전망이다. 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남해안의 친환경적 천혜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해양바이오 같은 첨단산업의 경제권과의 국제교류를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여수세계박람회 개최와 나주 혁신도시 추진 등 전남권의 국제 수송체계의 구축을 위해서는 무안·광주의 국제공항, 여수공항의 합리적인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이밖에도 고속도로망과 연계된 철도망의 정비도 필요하다. 여기서 막대한 투자재원규모, 당장의 효율가치만을 두고 비교한다면 그 해답을 구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육·해·공의 기존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어 이를 보완할 경우 지역의 발전 잠재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을 것이다. 시노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는 교토인프라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로마인들은 모든 땅을 축복하고 기록했다. 강에는 다리를 놓고, 산지에도 도로를 깔았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로마인들은 로마사람이 아닌 이들에게도 질서와 안정된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쳐주었다..." 로마인 이야기가 감동을 주는 이유는 경제력 향상의 결과로 구축된 인프라가 아니라, 경제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구축하는 것이 바로 인프라라고 생각했던 로마인들의 지혜가 빛나기 때문이다. <한국교통연구원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시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기 고 김낙현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수돗물 불소 농도조정 사업(이하 수불사업)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1999년부터 수돗물 불소 농도조정 사업을 실시한 울산광역시의 만3~5세 아동들의 충치가 수불사업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부산광역시의 아동보다 43.5%나 적었고, 서울특별시 아동보다 37.0%가 적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수 있다. 비용은 거의 들이지 않으면서 국민구강보건에 탁월한 효과를 지닌 수불사업은 시민단체나 우리 국민 모두가 그 시행을 위하여 집단민원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문가 집단인 치과사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그만한 타당성과 안전성이 입증되었고 확실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수용하여 행정관청에서 시행을 하려고 하더라도 일부 시민단체의 극렬한 반대에 직면하면 포기 내지는 서랍 속에 잠재우는 공적사회도 조금은 실망스럽다. 때문에 소신 있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에 대하여

충치이다. 충치에 가장 탁월한 예방효과를 보이는 것이 불소라는 것은 세계적으로 입증되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지역에서만 한정적으로 수불사업을 시행하였다. 이 사업을 치과 의사들에 건의에 의하여 정부가 확대하려고 하면 특정 단체들의 반대가 극심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대 단체들이 자극적인 표현을 동원하여 주장하는 불소의 유해성은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다. 울산광역시의 예에서 그 분명한 효과가 입증된 수불사업의 시행을 요구하는 치과사들의 주장에 주목할 때가 되었다. 수불사업으로 충치를 예방하게 되면 치과 환자는 줄어들고 치과사들의 수입은 감소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과사들이 이 사업을 적극 주장하고 나서는 것이 무엇인가 이윤배반적인 상황이라 생각하지 않는가? 우리가 먹는 물은 일정량의 불소를 함유하고 있다. 하지만 불소의 농도를 적절하게 조절하면 어린이 치아뿐만 아니라 영구치의 충치를 탁월하게 예방할

기 고 김경중



현대에 들어 정신건강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기본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특별히 그 어느 시대보다도 현대라는 상황은 그동안 인류가 지켜온 가치관과 전통 등이 바뀌어짐으로 물질만능주의적이며 기계문명적인 요소들은 현대인들이 소외시키고, 부적응 상황들은 혼란과 불안, 그리고 치열한 생존경쟁은 각종 스트레스를 가져다 주어 결과적으로 현대인들은 과잉양산된 질병으로 고통받는 것이 현실화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스트레스로 촉발된 우

성을 인식시키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여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자 위함이다. 특별히 국민의 상심이 되는 '4'자가 두 번 들어가는 4월 4일을 정신건강의 날로 제정한 것은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때문에 제대로 진료나 치료를 받지 못하는 점을 교정하기 위해서이다. 결국 정부에서는 1995년 정신보건법을 제정하여 국민들의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질환의 예방, 그리고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재활에 대한 관리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전국적으로 40개소에 달하는 모병형 정신보건센터를 설립 운영하

정신건강, 웰빙의 시작!

울증은 인구의 약 10%에 해당되는 현대인의 '정신적 감기'로, 자살과 같은 참극으로 이어짐을 우리들은 매스컴을 통해 수시로 목격하고 있다. 스트레스는 신체질환 및 정신질환을 아우르는 만병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는 경우 치명적인 질환으로까지 이어진다고 알려져 있다. 이렇듯 정신건강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은 선뜻 정신적 문제를 조기에 진압하지 못하게 된다. 정신질환은 난치성이며, 정신질환에는 특별한 치료법이 없고, 사람을 완전히 무능하게 만들고, 정신질환자는 위험하다는 등의 잘못된 선입관과 주위의 따가운 시선에 대한 예기불안은 집안의 정신과의를 찾아가 수 없게 만들고 만다. 매년 4월 4일을 '정신건강의 날'로 정한 이유는 국민들에게 정신건강의 중요

노인들 틀니도 건강 보험 적용했으면

70이 넘으신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데, 이가 좋지 않으니 부모님을 볼때마다 마음이 편하지 않다. 단단한 음식을 잘 씹지도 못해 국에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보면 틀니를 해드려야 하겠다고 다짐을 수없이 하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다. 수 백만원의 비용이 든다고 하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음식을 제대로 드시지 못하면 영양 불균형 상태에 이르게 되지만 막대한 돈 때문에 불효를 저지르고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노인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감안, 틀니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건강보험 제정이 어려워먼 1차적으로 80세 이상을 대상으로 시행한 뒤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65세 이상의 노인들까지 치료 틀니를 건강보험으로 적용해 주었으면 한다. ▲임희경·광주시 북구 용봉동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 지급합니다.

시 설 公薦갈등, 후보선출 새 시스템 계기로

지방선거가 두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국이 후보자 공천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여야가 마한가지다. 갈등의 요체는 당원경선이나 이른바 전략공천이냐로 간주된다. 각당 지도부가 공천원칙을 이뤘다 저했다 한것이 갈등을 키운 원인이지만, 탈락자들이 항의표시로 자신의 손가락을 자르거나 음독을 하는 지경이니 그 심각성을 짐작할만 하다. 원칙을 따지자면 정당이 공직후보를 결정할때 당원들의 총의에 따라야 한다는게 우선이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다르다. 우리나라 정당은 그 정도로 분별력있는 당원을 아직 보유하고 있지 않다. 때문에 '당원직선'의 황금률만을 좇아 상상식 공천을 하다가 당원 환심사기에 주력한 불량후보가 압도적으로 뽑히기 십상이다.

지방선거가 두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국이 후보자 공천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여야가 마한가지다. 갈등의 요체는 당원경선이나 이른바 전략공천이냐로 간주된다. 각당 지도부가 공천원칙을 이뤘다 저했다 한것이 갈등을 키운 원인이지만, 탈락자들이 항의표시로 자신의 손가락을 자르거나 음독을 하는 지경이니 그 심각성을 짐작할만 하다. 원칙을 따지자면 정당이 공직후보를 결정할때 당원들의 총의에 따라야 한다는게 우선이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다르다. 우리나라 정당은 그 정도로 분별력있는 당원을 아직 보유하고 있지 않다. 때문에 '당원직선'의 황금률만을 좇아 상상식 공천을 하다가 당원 환심사기에 주력한 불량후보가 압도적으로 뽑히기 십상이다.

2·3주 아르바이트가 일자리 창출인가

매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정부의 일자리 지원사업이 총체적 무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일자리 지원사업은 지난해 1조2천239억원이 투입됐으며 올해는 1조4천609억원을 들여 모두 39만6510명에게 일할 곳을 제공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그러나 이사업은 인원을 불풀러거나 부처간 중복추진 등 솔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올해 산모와 신생아 도우미 사업으로 1만1천192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실제 상시 일자리 창출효과와 고작 894명에 그치고 있다. 아르바이트 차원에서 2~3주만 참여해도 1명의 일자리 지원으로 계산되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이다. 대학생과 고교생의 진로설계에 도움을 주기위한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역시 이름만 그럴싸하다. 대상인원 6만2천500명가운데 상당수는 단순히 허드렛일 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컴퓨터를 즐기며 시간만 때우는 경우가 적

지 않는다. 일자리를 노동부와 복지부, 산자부 등 13개 부처에서 제각각 추진하고 있는 점도 예산 낭비를 부채질하고 있다. 사회적 일자리 지원의 경우 노동부와 환경부,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5개 부서가 중복 투자하고 있는 실정이다. 계획부터 관리까지 총괄조정하는 주무부처 지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일자리 창출은 임시방편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푸는 것이 근본 대책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한 보고서에서 행정규제가 매년 0.5%의 경제성장률을 갉아먹는다고 지적했다. 성장률이 0.5%포인트 높아지면 대략 4만5천 개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한다. 현란한 구호만으로는 양극화가 해소되지 않는다.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분배정책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無等鼓

기원전 324년 인도 최초의 통일 왕조인 찬드라굽타의 일곱 참모는 '차나키야'라는 이름의 인물이었다. 찬드라굽타 왕조의 정책은 거의 그의 머리에서 나왔다. 현실주의에 바탕한 정책으로 그는 '인도관 마키아벨리'로도 불린다. 그의 정책은 모든 인도 왕조의 통치 기본이 됐다. 2천여년이 지나도록 차나키야는 인도인들에게 역사상 제일의 관료로 꼽히고 있다. 인도가 영국 식민지이던 1937년, 독립운동 지도자이자 인도 국민회의 총재였던 네루는 지방의회 선거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두었다. 물론 식민지 인도 입장에서 반쪽 차치였지만 그의 승리는 독립으로 가는 발판이 됐다. /오중승 정치부장 jsoh@kwangju.co.kr

차나키야



사람들의 호기심을 발동했다. 인도인의 가슴 속에 각인된 영웅의 이름으로 네루를 고발한 그는 누구일까. 나중에 밝혀졌지만 그 기고자는 다름 아닌 네루 자신이었다. 그는 지방선거 승리를 환영하는 회에서 소속 정당인 국민회의와 자신을 타자의 눈으로 비판하며 성공과 자만을 경계한 것이다. 5·31 지방선거가 이제 60일밖에 남지 않았다. 각당의 관심사는 온통 선거 승리에 쏠려 있다. 우리 정치판에도 네루처럼 자기검열에 엄격한 정치인은 없을 까. /오중승 정치부장 jsoh@kwangju.co.kr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喆	사장 편집·발행·인쇄인 白仁鏡	편집국장 池炯源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시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29 정 치 부 2200-616 경 제 부 2200-617 사 회 1 부 2200-618 (F A X 222-4267)	시 회 2 부 2200-619 (F A X 227-0118) 문화생활부 2200-626 여론채부 2200-628 체 육 팀 2200-627 사 진 부 2200-690 조 사 부 2200-570	총 무 부 2200-511 (F A X 222-8005) 광 고 국 2200-521 (F A X 227-9500) 디 자 인 2200-536 시 설 2 부 2200-552 (F A X 02-773-933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0195) 판 매 부 2200-551 (F A X 227-9500) 서울지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디지털 잠금 장치해술... 보완 장치 마련해야

얼마전 직장에서 퇴근을 준비하는데 집의 아래로부터 도둑이 들어 경찰에 신고했다는 연락이 와, 서둘러 달려갔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누군가 현관문 디지털 잠금 장치를 열고 침입한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 옆쇠 수리를 전문으로 하는 곳에 문의했더니 3만달러 안팎의 순간 전기충격을 주면

서 디지털 잠금 장치의 오작동을 유발시켜 문을 여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다. 또 쉽게 구입할 수 있다는 말도 들었다. 이제 디지털 잠금 장치만으로 모자라 보조 잠금 장치를 설치해야 할 것 같다. 디지털 잠금 장치 제작 회사도 이런 상황을 제대로 알고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보상 판매를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신연식·광주시 북구 대촌동